“잊고 싶다! 2015…찾고 싶다! 스피드”

KIA 좌완 임기준 2016 다짐

시즌 초 난타 당하며 사라진 뒤
7월 복귀 후 삼성에 첫 선발승
동작 바꾸며 제구 잡기 안간힘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짓던 투수 임기준. 올 시즌을 돌아보면 할 말이 없는 임기준이다.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스프링캠프에서 임준혁 임준섭과 함께 ‘임트리오’로 불리며 선발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기대주였다. 스피드 대신 제구를 선택한 임준혁이 가장 안정감 있는 페이스로 스프링캠프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 뒤로 임기준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힘있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여기에 까다로운 투구폼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며 스프링캠프의 샛별로 등극했다. 수준급 견제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KIA 마운드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KIA에는 귀하고 귀한 좌완이라 임기준에 대한 기대는 더 컸다.

시즌에 들어서면서 ‘임트리오’의 승자는 임기준이었다. 꾸준함으로 선발 자리를 찜을 해두었던 임준혁이 첫 선발 등판 전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이다. 임기준에게 선발 임무가 주어졌지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NC를 상대로 한 4월8일. 시즌 첫 출격부터 10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6이닝 13피안타(2홈런) 11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했다. 두 번째 선발이었던 4월16일 LG전의 기록은 3이닝 3피안타 4사사구 5탈삼진 3실점이다. 사사구에 스스로 무너진 임기준은 이후 1군에서 자취를 감췄다. 7월이 되어서야 1군에 돌아온 그는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선발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7월22일 삼성전에서 다시 선발로 출격했지만 2.2이닝 4피안타 3사사구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아쉬움과 기대를 오가며 힘겹게 보낸 2015시즌에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 첫 선발승의 기억이 남아 있다. 난적 삼성을 한, 어려웠던 상황에서 만든 귀중한 승리가 있다.

7월22일 삼성에게 쓴 패배를 기록했던 임기준은 9월5일 삼성을 상대로 선발 복귀전에 나섰다. 삼성의 강타선과 피가로라는 강적을 넘어 만든 5.1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였다.

잊을 수 없는 첫 승은 만들었지만 돌아보면 아찔한 한 해였다. 마음과는 다른 결과에 답답하기도 한 시즌이었다. 2016시즌을 준비하는 임기준에게 던져진 질문은 잃어버린 스피드와 제구다.

임기준은 “올 시즌 제구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게 제일 부족했다. 제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 디딤발을 크로스에서 스퀘어로 바꿨다. 팔을 올릴 때도 1루 쪽이 아닌 정면으로 뻗도록 하면서 제구를 잡는데 신경 쓰고 있다”며 “스피드도 경찰청 때보다 많이 줄었다.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많이 답답하고 당황했었다. 딱히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스피드에도 신경 쓰면서 내년에는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조형물 21일 오후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장 앞에 설치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조형물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호 장타를 부탁해

美 야구통계사이트 “미네소타 운명 달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내년 미네소타 트윈스의 운명이 해외 영입파인 박병호(29)와 유망주 미겔 사노(22)의 장타 생산력에 갈릴 것으로 분석했다.

팬그래프닷컴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선데이 노트’에 2016시즌 미네소타 전망을 실었다. 기사의 핵심은 박병호와 사노다. 팬그래프닷컴은 “박병호와 사노 모두 많은 홈런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서도 “박병호는 아직 미국프로야구를 경험하지 못했고, 사노도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80경기만 뛰었을 뿐”이라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카드’로 분류했다. 한국에서 영입한 박병호와 애지중지 키운 사노의 빅리그 적응력이 미네소타 타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테리 라이언 미네소타 단장은 희망을 품었다.

라이언 단장은 팬그래프닷컴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박병호의 강한 정신력을 믿는다”고 신뢰를 드러내며 “박병호는 19살이 아닌 29살이다. 그는 한국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병호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라이언 단장은 “박병호가 LG 트윈스에서 다소 불운한 시절을 보냈지만 넥센 히어로즈로 트레이드 된 후에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됐다”고 박병호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미 힘겨운 시절을 극복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그에서도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라이언 단장은 “우리는 박병호를 정밀하게 관찰했고 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해내리라 판단했다. 이런 의견은 다른 팀에서도 나왔다”며 “박병호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고 시절 4연타석 홈런을 친 ‘거포 유망주’ 박병호는 2005년 LG에 1차 지명됐으나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2011년 넥센으로 이적한 박병호는 팀의 4번타자로 자리한 뒤 장타력을 뽐냈다. 2012~2015년, 4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에 나섰고 미네소타에 둥지를 틀었다. 미네소타가 새로운 거포 박병호와 사노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라이언 단장은 “사노는 이제 22살이다. 2016년에 다소 부진해도 계속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사노는 미네소타의 미래로 꼽힌다. 빅리그에 빠르게 적응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박병호는 즉시전력감으로 분류했다. 라이언 단장과 미네소타는 2016년부터 박병호가 장타 생산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김현수 20홈런 기대해

예측시스템 ZiPS 전망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입단을 눈앞에 둔 김현수(27)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20홈런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구 통계 전문가인 댄 짐보스키는 최근 자신이 고안한 야구 예측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를 활용해 김현수의 내년 시즌 성적을 예상했다.

짐보스키는 김현수가 내년 시즌 볼티모어의 좌익수를 맡으며 132경기에 출전, 516타수를 소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타율 0.269에 출루율 0.336, 장타율 0.428, 20홈런, 64타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ZiPS는 해당 선수의 최근 4시즌을 분석하고, 과거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의 나이별 기록을 통해 성적을 예상한다.

짐보스키가 예측한 김현수의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은 1.5로 김현수가 메이저리그의 평범한 선수보다 팀에 1.5승을 더 안기는 타자로 평가했다.

통상 WAR 1이 600만~7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다고 가정하면 짐보스키가 예측한 WAR 1.5는 김현수의 2년치 연봉(700만 달러 추정)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치다. 짐보스키는 이에 앞서 박병호에 대해서는 133경기에 출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타율 0.266에 출루율 0.333, 장타율 0.463, 27홈런, 84타점을 수확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골퍼 최나연·전인지 이웃돕기 성금

최나연

전인지

여자프로골퍼 최나연(28·SK텔레콤)과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최나연은 지난 6일 팬들과 함께 자선 경매 행사를 열어 수익금 3000만원과 자신이 낸 3000만원을 더해 모두 60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 성금은 결식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전인지도 버디를 할 때마다 팬들이 1000원씩 내서 모은 2000만원과 같은 금액을 더해 4000만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연합뉴스